



◆맨해튼 시티홀 파크에 전시중인 민영순씨의 작품 'Groundswell'의 전경.

## 민영순씨 조각작품 시티홀파크 전시

한인화가 민영순씨의 조각작품 'Groundswell(여파)'가 5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시티홀파크(브로드웨이 서쪽, Chambers St. 북쪽가에 있는 3각형 지대)에서 전시되고 있다.

뉴욕시 공원국이 협찬하고 공공예술재단(PAF)이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미국의 사적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공원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계획하에 민씨를 포함한 미국 작가 5명의 야외 초대전인 셈이다.

작품 'Groundswell'은 집모양의 조각품 3개를 연속 배치시켜 인종간 화합을 구현하는 이상적 도시의 발전과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번째 하우스는 원형적인 틀로서 검은 색깔에 뚜렷이 형상화되지 않은채 지상에 작품의 절반만 드러나 있다. 두번째 하우스는 지상에 솟아나 경쾌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안에 흰색 나선모양의 틀이 놓여져 상반되는 세력들과 변화를 위한 투쟁을 상징화하고

있다.

세번째 하우스는 빨강, 노랑 등 생동하는 색깔과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로 꾸며져 있는데, 사방으로 열려진 유리거울은 서로서로를 비춰내고 있다. 민씨는 바로 이 하우스가 이상적 커뮤니티의 구현과 모든 인종의 화합을 나타내는 '가정'이라고 밝혔다.